

#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현<sup>1</sup> · 이은희<sup>2</sup> · 현혜진<sup>3</sup> · 길정희<sup>4</sup> · 김진순<sup>5</sup> · 박양숙<sup>6</sup> · 박진숙<sup>7</sup> · 이호연<sup>8</sup>

<sup>1</sup>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강원대학교 건강돌봄연구소 소장, <sup>2</sup>강릉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3</sup>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4</sup>춘천정신보건센터 간호사, <sup>5</sup>당림리 보건진료소 진료소장, <sup>6</sup>춘천한방병원 간호사, <sup>7</sup>강원대학교병원 간호사, <sup>8</sup>서울의료원 간호사

## A Study of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Clinical Nurses

Joohyun Kim<sup>1</sup>, Eunhee Lee<sup>2</sup>, Hae Jin Hyun<sup>3</sup>, Jung Hee Gil<sup>4</sup>, Jin Soon Kim<sup>5</sup>, Yang Sook Park<sup>6</sup>, Jin Sook Park<sup>7</sup>, Ho Youn Lee<sup>8</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reung National University, Wonju;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sup>4</sup>Nurse, Mental Health Center at Chuncheon, Chuncheon; <sup>5</sup>Nurse, Public Health Center at Danglim, Chuncheon; <sup>6</sup>Nurse, Chuncheon Traditional Medical Center, Chuncheon; <sup>7</sup>Nurs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cheon; <sup>8</sup>Nurse, Seoul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clinical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a trans-sectional survey resea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6 clinical nurs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medical record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perceived health status, job satisfaction, familial suppor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depression. The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clinical nurses were depression, famil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These 3 factors explain 18.6% of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clinical nurse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the empirical evidence that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clinical nurses are closely related to depression, famil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This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health promoting program for clinical staff nurses.

**Key Words :** Health promotion; Depression; Support; Job satisfaction  
국문주요어 : 건강증진 행위, 우울, 가족지지, 직무만족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이란 소극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상태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정의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는 장애나 질병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신체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즉 인간의 총체적인 안녕 상태라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건강 관리 비용의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안녕수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강증진행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Lim, 2005).

건강증진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차 건강관리 수준의 접근임을 고려할 때 간호사들의 건강증진자로서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로 간호사는 건강생활 실천자의 모델로서 직접간호 제공자, 건강교육자, 건강행위 촉진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reung National University, 901 Heungeop-ri, Heung-mycon, Wonju 220-711, Korea  
Tel: 82-33-760-8305 Fax: 82-33-242-8840  
E-mail: hjhyun@kangwon.ac.kr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 건강돌봄연구소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투고일 : 2009년 9월 23일      심사의뢰일 : 2009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5일

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Park & Kim, 2000). 특히, 서비스 대상인 환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간호제공과정에서 장기간 노출된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Kim, 1997), 불건강한 상태에 있는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환자 간호의 질과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간호의 질과 양의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Cho, 1999).

그러므로 간호사에게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건강하지 못한 간호사는 자신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환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사는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건강증진행위가 요구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지각된 유익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건강증진실천양식 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oi, 2006; Park & Kim, 2000), Lim (200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관적인 현 간호직 만족도, 보수 만족도, 정신건강상태 등의 세 가지 변수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다. Kim (2003)의 연구에서는 일 지역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요인은 자기효능감, 수입, 지각된 이익성, 피로, 가족 지지로 나타났으며, Oh (2004)의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사회적 지지, 직장만족도, 건강상태, 보수 만족도, 정신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Sung (2004)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와 섭식장애,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콜레스테롤의 상승과 관련이 있고 헤모글로빈은 영양 상태 판정에 중요한 요소이다(Jarvis,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요인으로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각된 비만정도, 신체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Cholesterol, Hemoglobin을,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직무만족과 가족지지 등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바람직한 건강관

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좀 더 효율적인 건강증진 제 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간호사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들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과 강원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서울과 강원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들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사가 대상이다.

### 3. 연구 도구

#### 1) 건강증진행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성취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Walker, Sechrist와 Pender (1987)가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HPLP)를 Lee와 So (2009)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52문항 4점 척도로 건강에 대한 책임감, 운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 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3이었다.

#### 2) 우울

주관적인 우울정도를 10점 만점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 3) 비만정도

주관적인 비만정도를 10점 만점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4) 직무만족

주관적인 직무만족을 10점 만점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5)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10점 만점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6) 가족지지

주관적인 가족의 지지를 받는 정도를 10점 만점의 숫자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7) 생리적 측정

신체 체질량 지수(BMI), 헤모글로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강원지역에 근무하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배포한 240부 중 무응답 등의 부적절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206부를 분석하였다. 생리적 변수의 경우는 2009년 정기 6월 직원 정기건강검진 기록을 관련 병원 간호부와 대상자의 허락을 얻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를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3)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62세이었고, 모두 여성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 123명(58.7%), 미혼은 81명(39.3%), 기타 2명(1.0%), 학력은 전문대졸 138명(67.8%), 대졸 57명(27.7%), 대학원졸 11명(5.3%)이었다. 근무경력(평균 7년 9개월(93.07개월))이었다.

중속변수에 대한 평균을 보면(Table 2), 건강증진행위는 4점 척도에 평균 2.37이었다. 주관적 비만도는 10점 척도로 5.38, BMI는 평균 20.57 (kg/m<sup>2</sup>)이었고, 건강상태는 10점 척도로 평균 6.18이었다.

우울은 10점 척도로 평균 4.5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직무만족도는 10척도에 평균 5.58이었으며, 가족지지는 10점 척도에 평균 6.35이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173.28 mg이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는 평균 12.76 g/dL로 나타났다.

2. 임상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및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건강증진행위는 지각된 건강상태( $r=.232, p=.001$ ), 직무만족( $r=.309, p=.000$ ) 및 가족지지( $r=.265, p=.000$ )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는 우울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 $r=-.347, p=.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비만도는 BMI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488, p=.000$ ), BMI는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165, p=.018$ ). 지각된 건강상태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6)

Variables	Mean (SD) or Freq (%)
Age	30.62 (7.10)
Duration of working as a nurse (month)	93.07 (82.55)
Marital status	
Married	123 (58.7)
Unmarried	81 (39.3)
Educational level	
3 year nursing college	138 (67.8)
Bachelor	57 (27.7)
Master	11 (5.3)
Total	206 (100.0)

Table 2. Mean &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206)

Variables	Mean	SD
Health promotion behavior	2.37	0.35
Perceived obesity	5.38	1.85
Body mass index	20.57	2.07
Perceived health status	6.18	1.87
Depression	4.53	1.31
Job satisfaction	5.58	1.69
Familial support	6.35	1.82
Cholesterol	173.28	27.13
Hemoglobin	12.76	1.01

Table 3. The Correlation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N=206)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Health promotion behavior	1.000	-.046	.059	.232**	-.347***	.309***	.265***	.025	.063
		.566	.422	.001	.000	.000	.000	.716	.368
2. Perceived obesity		1.000	.488***	.035	.085	.047	.086	-.025	-.054
			.000	.614	.225	.506	.218	.726	.437
3. BMI			1.000	.017	.043	.165**	.109	-.020	-.063
				.810	.538	.018	.118	.779	.336
4. Perceived health status				1.000	-.290***	.340**	.158**	-.028	-.035
					.000	.024	.014	.914	.616
5. Depression					1.000	-.281***	-.117	-.041	.106
						.000	.095	.557	.130
6. Job satisfaction						1.000	.305***	.015	-.072
							.000	.831	.303
7. Familial support							1.000	.016	-.049
								.818	.482
8. Cholesterol								1.000	.035
									.616
9. Hemoglobin									1.000

BMI=Body mass index.

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Clinical Nurses

Variables	$\beta$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t	p
Depression	-.150	.120	.116	-4.208	.000
Familial support	.035	.171	.163	2.699	.008
Job satisfaction	.037	.198	.186	2.576	.011

F=16.599 p=.000 R<sup>2</sup>=.198 Adjusted R<sup>2</sup>=.186

우울( $r=-.290, p=.000$ ), 직무만족( $r=-.281, p=.000$ ) 등과는 유의한 부적의 상관관계가, 가족지지( $r=.158, p=.024$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가족지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305, p=.000$ )를 보였다. 생리적 변수인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지각된 비만도, BMI,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만족, 가족지지,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우울, 가족지지, 직무만족 등이었으며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18.6% 설명하였다(Table 4). 3개요인 중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는 우울로 나타났다(Table 4).

## 논 의

2007년 보건통계자료에 의하면 보건 의료 종사자는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다(Korea Medical Association, 2009). 그 중 종합병원 의료 인력의 총 수에서 간호구성 비율은 59%에 달한다. 임상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Cha, 2008)하여야 하나 복잡한 인간관계의 유지, 급증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환자들의 질적 간호요구, 부적절한 근무조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 중에 건강하지 못한 환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위협은 간호사 개인의 손실뿐 아니라 환자의 간호에도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호사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요인으로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각된 비만정도, BMI, Cholesterol, Hemoglobin을,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직무만족과 가족지지 등의 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는 4점 척도에서 평균 2.37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인 지각된 건강상태는 10점 척도에서 평균 5.38로 보통정도이었다. 생리적 변수로 측정된 체질량 지수는 20.57 (kg/m<sup>2</sup>)로 정상범위(18.8-24.9)에 속해 있었으며 Cholesterol 173.28 mg, Hemoglobin 12.76 g/dL로 각각 정상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지각된 비만도, BMI, 지각된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가 건강 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Lee et al., 1996)와 건강증진 행위에 건강상태가 유의한 예측요인이라고 한 Yi 등(2004)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연구 결과이었다. 이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대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특정한 질병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곧바로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즉각적으로 치료하기에 정상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건강증진행위에도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상간호사의 신체적 요인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10점 척도에서 4.53점으로 Lee와 Kim (2006)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40.8%에서 평균보다 높은 우울성향을 보여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 결과와는 달리 보통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임상간호사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교대 업무 특성상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육아문제가 우선시 되는 기혼자의 비율이 58.8%임을 감안한다면 가족 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가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지지 체계로서의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에 가족 지지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고 보고한 Park (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건강증진행위가 가족지지와 관련이 있다는 Park 등(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건강증진행위, BMI, 지각된 건강상태 및 가족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만족은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이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Kim (1997)의 종합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된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았다고 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무만족이 가족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Ko (2007)의 기혼간호사의 역할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 내 역할 갈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Lee (2001)의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에서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직업만족도, 건강상태지각, 자기효능감 등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건강증진행위 관련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가족지지, 건강의 중요성, 이의성, 장애성,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위 등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되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우울, 가족지지, 직무만족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가족 지지는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를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증진 행위를 이행하게 함으로서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심리적인 면에서 우울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직무만족도를 평가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직무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영향요인을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각된 비만도, BMI, Cholesterol, Hemoglobin 등의 신체적 요인과 우울의 심리적 요인 및 직무만족과 가족지지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만족이 건강증진행위, BMI, 지각된 건강상태 및 가족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우울, 가족지지 및 직무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난 우울, 직무만족, 가족지지 등을 고려하여 임상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 행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 중 직무만족과 우울은 영향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ang, K. S., & Park, H. J. (2008). Correlation assertiveness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 Korean Clin Nurs Res*, 14, 93-102.
- Cha, I. J. (2008).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 Y. S. (1999). *A study of the critical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i, H. J. (2008). *Comparison of health conditions, sleeping condition,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commitment to organization job between nurses working only during day and those working in shif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Choi, S. R. (2006). *The factors that affect health-promotion lifestyl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Jarvis, C. (2004). *Physical examination & health assessment*. (5th ed.). St. Loise, MO: Elsevier.
- Jeun, Y. H. (2007). *Job stress, health stat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Kim, E. K. (2007). *The effect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hifting nurses' on the health condi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H. Y.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resourcefulnes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J. E. (2004). *Health evaluat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by their working patter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S., & Shin, K. R. (2004). A study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adult women. *J Korean Acad Nurs*, 34, 352-361.
- Kim, S. K. (2003). *Job-related stress and health of professional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O. (1997). A study of health condition and shift service of the nurse in general hospital. *J Korean Nurs Adm Acad Soc*, 3, 1, 119-133.
- Kim, S. O. (1997). *A study of health condition and shift service of the nurse in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Kim, S. O. (2003). *A study on the fatigu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o, I. A. (2007). *Role conflict of married nurs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Korea Medical Association. (2009). Retrieved February 11, 2009 from <http://www.kma.org/contents/board/mboard.asp?exec=view&strBoardID=report&intSeq=3449>
- Lee, E. H., & So, A. Y. (2009). *Comparison of Health locus of 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between middle Aged Koreans and Korean-America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INC 2009, Seoul, Korea.
- Lee, J. S. (2001). *The related factors with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ome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 Lee, M. O., Ryu, S. Y., Byun, I. G., & Park, J. H. (2004).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in some clinical nurses. *Unpublished Chosun University*, 29(2).
- Lee, W. H., & Kim, C.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perceived stress, fatigue and anger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36, 925-932.
- Lim, D. S. (2005). *A study on the health concept, health promotion and practices behaviors of some sold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Lim, K. H. (2002). *A study on shifting nurses health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Oh, E. J. (2004).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emergency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Park, B. Y. (2008).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H. J., & Kim, H. J. (2000). A study on health-promoting lifestyle and its affecting factors of hospital nurs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9, 94-109.
- Park, M. O. (2007). *The influence of health promotion life style, perception of head nurse's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n the work performance among nurses of some veterans hospit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 Park, Y. J., Lee, S. J., Oh, K. S., Oh, K. O., Kim, J. A., Kim, H. S., et al. (2002).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health behaviors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2, 792-802.
- 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J. (1987).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s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 Res*, 36(2), 76-81.
- Yi, S. E., Oh, K., Park, Y. J., Kim, J., Kim, H. S., Oh, K. O., et al. (2004).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health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4, 903-912.
- Yu, S. J. (2007). *Effect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es on health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